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지역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96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월 17일 (음력 12월 10일) 목요일

정부 13부 2처로…통일부 폐지

인수위 조직 개편, 청와대 4실 10수석→1실 1처 7수석 조정

해수·여성·과기·정통·홍보처 통폐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의 현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 현행 4실 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관련기사 2· 3· 4· 5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해양수산부·여성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국정홍보처 등을 통합·폐지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새롭게 개편된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산업인력양성기능) ▲외교통일부(외교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국가비상기획위원회)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환경부(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 등이다.

보훈처·법제처 등 4처 중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부로 통폐합됐으며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가 별도로 위치하고 국정기획·정무·민정·경제·사회정책·인재과학문화·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된다. 이밖에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416개의 위원회 조직도 대폭 축소돼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존치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스·상암동 DMC 수사 집중

BBK 특검, 이 당선인 관련 의혹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일단 BBK, 다스, 상암동 DMC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경준씨가 주장한 검찰 회유·협박설의 경우, BBK, 다스, 상암동 DMC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수사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사건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김학근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팀을 BBK 사건, 2팀을 다스 사건, 3팀을 상암동 DMC 사건, 4팀을 검찰(회유 협박설) 수사팀으로 꾸렸고 팀별로 특검보 2명씩이 중복 지정됐다"며 "4팀에는 아직 파견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1, 2, 3팀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4팀에) 검사를 배치할지,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해 우선 이 당선인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1팀은 문강배, 이건행 특검보가, 2팀은 김학근, 이상인 특검보가, 3팀은 김학근, 최철 특검보가, 4팀은 최철, 이건행 특검보가 각각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되며 각 팀에는 파견 부장검사 1명씩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 특검이 우선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암동 DMC 사건과 관련, 김 특검보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았는데 적은 양이 아니라 적어도 몇천 페이지가 된다"고 말해 앞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특검보는 "어제까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데 BBK와 다스 관련 기록은 수만 페이지에 이른다"며 "현재 기록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소환 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의 자랑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대한민국 제2호 '람사르 습지' 무안 갯벌

무안군 현경면과 해제면 일대 갯벌 35.6㎢가 지난 14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무안 갯벌에는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사고로 2.8t의 타르 덩어리가 유입됐으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작업으로 전량 수거됐다. 무안군 해제면 상공에서 바라본 무안 갯벌. 〈관련기사 12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타르 피해 보상 언제…어민들 생계 '막막'

'지원 특별법' 시급

전남 해역 타르 피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최종 보상까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어서 '어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어민 생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무안과 영광, 함평, 신안 등 타르 피해지역 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김 양식 어가들은 일반적으로 5천만원 안팎의 융자를 통해 양식을 한 뒤, 김 수확을 통해 이를 되갚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계가 막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식 어민들은 특별재난구역 지정 시 전남도가 요청한 긴급생계 지원자금 300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시급히 이뤄지길 요구하는 한편 광범위한 피해복구 및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어민들이 특별재난구역 지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하루 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타르 피해에 대한 보험사와의 보상협의가 빨라야 1~2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가장 빨리 보상협의를 마친 어민들의 경우도 15차례의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쳐 3년여의 기간이 걸렸다. 보험사와 협의에 실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은 10~12년에 보상을 받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IOPC Fund)과 보험회사(Skuld P&I)가 지정한 피해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사감정이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무안과 영광, 함평, 신안지역의 타르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의견 차이가 커 보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0 세계 장애인 탁구대회 광주 유치 확정적

2010년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광주시와 시 장애인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제장애인탁구연맹(IPTTC)의 2010년 세계 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마감 결과 광주시가 단독으로 대회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탁구연맹의 현지 실사와 최종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대회 유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는 구랍 27일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 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거쳐 국제장애인탁구연맹에 유치 신청서를 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